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수정안)

2023. 3.



[대학규제혁신국]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그간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2
III. 사업 목표 및 주요 방향	3
IV. 세부 지원계획	5
V. 추진체계 및 관리	13
VI. 향후 일정	17
[붙임 1] 국립대학 현황	18
[붙임 2]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 경과	19
[붙임 3] 추진과제 주요 내용	20

I. 추진배경

□ 미래사회에 대응한 국립대학 역할의 중요성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 요구 확대
- 국립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은 지역 경제·산업·사회의 근간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자체, 지역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가치 창출의 핵심 역할 수행 필요

□ 수도권 집중 가속화, 재정악화 등 위기에 직면

- 인력, 산업, 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국립대학 및 지역 사회·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
-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로 자체적인 교육·연구 투자 확대 및 교육과정 혁신 등 자체적인 혁신동력 창출에 한계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재정지원으로 국립대학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혁신 모델 정립 필요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통합에 따라 국가와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 및 역할의 명확화 필요

2022년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22~’24, 7530억원) (사립대, 5,966억원) (국립대, 1,564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립대, 8,057억원) 규제 개혁 기초에 맞추어 사업비 배분 방식 및 성과평가 등 개편 검토
국립대학육성사업 (‘18~’22, 1,500억원) (국립대)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 4,580억원) 국립대 특성에 맞는 일반재정지원으로서 ‘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신규 기획·추진
+1,516억원	

-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육성 및 국립대학 중심의 지역 상생 교육 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 마련 필요
- ⇒ 국립대학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 기반의 지원 강화 요구

II. 그간의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 그간의 성과

-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도입되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 토대 마련
- ※ 국립대 혁신지원사업(PoINT)으로 일부 대학을 단기 지원하던 방식('13~'17년)에서 모든 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으로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붙임2 참고)

< 국립대학의 책무성 관련 주요 성과 >

- (기초·보호학문분야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18년 222만 원→'21년 488만 원
-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모집비율) '18년 19.1% → '21년 23.7%
- (대학 간 연계·협력) '18년 91건 → '21년 141건
- (해외 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건수) '18년 117건 → '21년 181건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과 맞물려 '23년 국립대 시설·기자재 지원 확대* 및 국립대학 대상 일반재정사업의 통합 및 예산 증액

* 전년대비 국립대학 시설비 및 기자재 예산 약 5,000억 원 증

□ 보완 필요사항

- 혁신지원과 육성사업의 통합에 따라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필요
-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여 대학별 여건에 맞게 적극적 혁신 및 지역사회 협력, 대학 간 연계·통합 등을 추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성과관리·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Ⅲ. 사업 목표 및 주요 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사업
목표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으로 경쟁력 및 책무성 강화

기본
방향

국립대학별 자율혁신 추진 지원

국립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규제 없는 지원을 위한 자체 성과관리 강화

주요
내용

중장기 혁신계획

특화 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국정과제 85] 지방대학 시대 실현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책무성 제고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전략분야 인재 양성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더욱 강화

① 국립대학별 자율혁신 추진 지원

- 윤석열 정부 내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국립대학별 고유의 발전모델을 통한 자율혁신 지원
- 국립대학에 대한 두터운 일반재정지원에 따라 교육·연구 및 지역 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책임 강화
 - 대학이 지역사회 여건과 학교 비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특성 등을 반영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연계
- 국립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평가하여 '23년 인센티브 배분

② 국립대학의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

-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사업비 집행기준 외 별도 사업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의 경우, 한도(20%)내에서 경상비성 경비 등을 포함하여 자율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컨설팅 및 성과평가 시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최소화

③ 규제 없는 지원을 위한 자체 성과관리 강화

- '先 재정지원-後 성과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율 성과 지표 설정·관리, 대학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추진
- 정부 주도의 대면·정성평가는 축소하고 공통 성과지표 및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중심의 간소화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추진('24년~)

IV. 세부 지원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 기간) '23.3.1.~'24.2.29.
- (지원 대상) 국립대학 37교 (전체 국립대 대상,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기준)
 - ※ 거점 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원양성대학 포함(단, 국립대학 법인 제외)
- (지원 규모) 4,580억 원 ※ 사업관리운영비 12억 포함

2 사업비 배분

□ 기본 구조

- 포물러 사업비를 대학 유형별로 배분한 후 산식에 따라 유형 내 대학별 배분 + 인센티브 배분

<'23년 대학별 사업비 배분>

포물러 사업비(60%)			+	인센티브(40%)		=	대학별 지원액
기준경비 × 규모지수 × 조정 상수				기준금액* × 등급 가중치**× 조정 상수			
			* 포물러 산식 적용				
			** 등급별 가중치 : (S) 1.3 (A) 1.0, (B) 0.7, (C) 0				
거점대 (9교)	국가중심대 (17교)	교원양성대 (11교)					

□ 포물러 배분 (사업비 총액의 60%)

- 대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규모 등에 따른 사업비 기본 배분액 지원
- 총 사업비(4,568억 원)의 60%(약 2,741억원)를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 지수(재학생 및 전임교원 수) 등을 고려하여 포물러 배분

< '23년 포물러 산식(안) >

기준경비		규모지수		조정 상수		대학별 포물러 지원액
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유형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 대학별 등록금	×	√재학생 수 (학부정원 내 재학생 수 기준) + √전임교원 수	×	(유형별 총 예산액 / Σ (기준경비 X 규모지수))	=	

< 포물러 배분 산정 시 유의사항 >

- 기준경비, 규모지수 등은 2022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포물러 지원액은 거점국립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별 약 50%:42%:8%로 배분
- 한국방송통신대는 국가중심대의 평균값(1인당 교육비, 등록금, 재학생 수)을 적용하고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고려하여 '23년 포물러 배분액 조정
- 통합대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편제 완성 전 총 2년간 동 대학 유형 내에서 { (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1.1) } x [조정 상수]를 적용
- * '23.3월 통합대학으로 출범하는 한경국립대의 경우 '23년에 한해 포물러 예산은 통합 이전 대학별 포물러 예산액 산출 후, 합산하여 한경국립대로 배정

※ '24년 포물러 배분기준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예정(의견수렴 후 확정)

□ 인센티브 배분 (사업비 총액의 40%)

※ '24년 성과 인센티브 배분 비율은 사업비 총액의 50%로 상향 예정

- 총 사업비(4,568억 원)의 40%(약 1,827억원)를 인센티브 평가 결과 및 글로벌 대학 선정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배분

* 글로벌 대학 육성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선정된 글로벌 대학에 인센티브 배분

□ 기본 방향

- 대학에서 수립한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과제 관련 영역에 우선 편성
-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이외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

※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

□ 추진과제 주요 내용

-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 하도록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설정·운영

주요 과제	추진과제(예시)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 적정규모화 계획('23~'25)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 대학 내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연계 체계 구축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경직적인 학과·전공 운영 개선, 학생의 수요 및 진로를 반영한 혁신적인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국립대학-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정책 및 재정지원 연계 -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 국립대학의 자원 및 기술 등 개방 -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등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 국립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통합 여건 조성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적 특화 학문분야 지원 확대 -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및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 제고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 지역수요 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여건 구축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내 취업·정주 연계

4

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 개선

- (원칙) 사업비 집행기준을 비목별 집행불가 항목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 및 학내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인건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는 지급 불가하나,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급여, 시간 외 수당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 인건비 지급은 가능

<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

비 목	집행불가 항목	총액 한도
인건비	-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운영·지원비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
장학금	- 학자금 이종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	20%

※ 세부내역별 편성비목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세출예산 성질 과목 구분과 설정”을 따름

□ 평가 개요

- (기본 방향) 국립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
- (대상/시기) 국립대학 37개교 / '23. 6월 말~7월 초(예정)

□ 평가 지표 및 내용

-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 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 내용(안) >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혁신 계획	1. 교육혁신 전략(80)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전략	정성지표 절대평가
핵심 교육성과	2. 유지충원율(5)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정량지표
자체 성과관리	3.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15)	
	•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방안	정성지표 절대평가

- (혁신계획)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별·지역별 여건에 맞게 학사 운영 및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하고, 학생의 전공 선택·진로 지원 등을 내실화하려는 대학의 혁신 의지 평가
 - '①학생 모집-②재학 초기-③재학 중' 단계별 혁신계획의 적극성, 창의성, 다양성 및 실행 가능성 등 평가
 - ※ '22년 여건·성과 분석을 토대로 '23~'25년 추진계획 제시
 - 대학의 기존 노력 및 성과를 포함하여 향후 혁신계획을 평가하되, 지역별 여건, 대내외 의견수렴,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

<교육 혁신 전략 주요 추진 내용>

단계		주요 추진 내용(예시)	평가 주안점
학생 교육	모집	- 전공·학과 등 구분 없는 모집 ※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 지역·사회수요 등을 고려한 학과·계열 등 개편	- 기존 노력 및 성과 등도 평가 - 양적 요소(수혜학생 규모, 운영 규모 및 비율 등) 고려 - 혁신과제의 적극성·도전성 등 난이도, 학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실행가능성 등 평가
	재학 초기	- 기초소양교육 활성화 - 학생 적성·특성을 고려한 기초교육 및 전공탐색 지원	
	재학 중	-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지원체계 포함) -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연계·융합 전공, 자기설계전공, 복수·부전공 등	
제도 기반		- 유연한 학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학내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 (예)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재정·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배치*, 융합전공에 참여한 학과·전공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예) 단과대학 소속, Joint Appointment 등	

- 대학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평가영역 및 비중 등을 유연하게 운영

< 대학유형별 중점 평가 내용>

대학 유형	중점 평가 내용
거점대 (9교)	'학생 모집-재학 초기-재학 중' 쉼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17교)	- 지역별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학 초기-재학 중' 단계 및 제도 기반 구축 노력 중심으로 평가 - 특수목적대(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등)의 특수성을 평가 시 고려
교원양성대 (11교)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 고려 → 기초학력 증진 등 학교 현장의 수요 대응, 디지털 역량 및 예비교원의 하이터치(High Touch)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중점 평가 (교원양성연수과와 협의)

- (핵심 교육성과) 유지충원율의 핵심 요소인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

※ 신입생충원율(%) = [정원 내 입학자(명) / 정원 내 모집인원(명)] * 100

재학생 충원율(%) = $\left[\frac{\text{정원 내 재학생 수} + \text{조기졸업자 수}}{\text{정원 내 학생정원} - \text{학생모집 정지인원}} \right] * 100$

*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첨단학과 신증설, 편입학 선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 별도 보정(추후 안내)

※ 2021~2022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

- (자체 성과관리) 대학의 자율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방안을 평가
 - 대학의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자율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 환류 방안 등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학계, 지역사회 및 연구·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평가위원 자격 및 제외 대상 등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1.1)」 참조
- (평가 방법)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정량지표로 구분하고, 정성지표는 패널별 평가(거점대, 국가중심대, 교원양성대), 정량지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점수 산출
 - (정성지표)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표별 절대평가
 - (정량지표)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

<평가 주요 절차>				
점수	평가 및 심의			결과 통보
대학별 계획서 접수	정량평가 핵심 교육 성과 지표에 대한 정량점수 산출	⇒ 정성평가 패널별 서면검토 및 질의응답 실시	⇒ 최종 심의 평가 결과 및 사업비 배분(안) 심의	최종 평가 결과 및 대학별 지원액 확정
연구재단	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교육부·연구재단

- (결과 산출)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절대평가로 대학별 등급 부여(S, A, B, C)* 부여
 - *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90점 미만, (B) 60점 이상~80점 미만, (C)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인센티브 배분) 인센티브 배분액(총 사업비의 40%)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
 - ※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 적용 : (S) 1.3, (A) 1.0, (B) 0.7, (C) 0
- (최종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지원액 최종 확정

□ 성과평가 및 관리 ('24년~)

- 정부 주도의 평가·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및 자체 성과관리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개편 방향 검토
 - 정성평가는 최소화하고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 추진
 - 대학 유형별 특성,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 추진과제별 핵심성과 등을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및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관리
- * '23년 혁신계획에서 제출한 대학별 자율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 대학의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및 향상 정도 등 확인

※ '24년 성과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 등 추진 예정

- 대학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공통 성과지표 및 지표별 배점 등 추후 확정(~'23.上)

- (자체 성과관리) 대학별 자체 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시스템 도입 지원

【 참고 】 IR 시스템 도입·운영

□ IR(Institutional Research)의 개념과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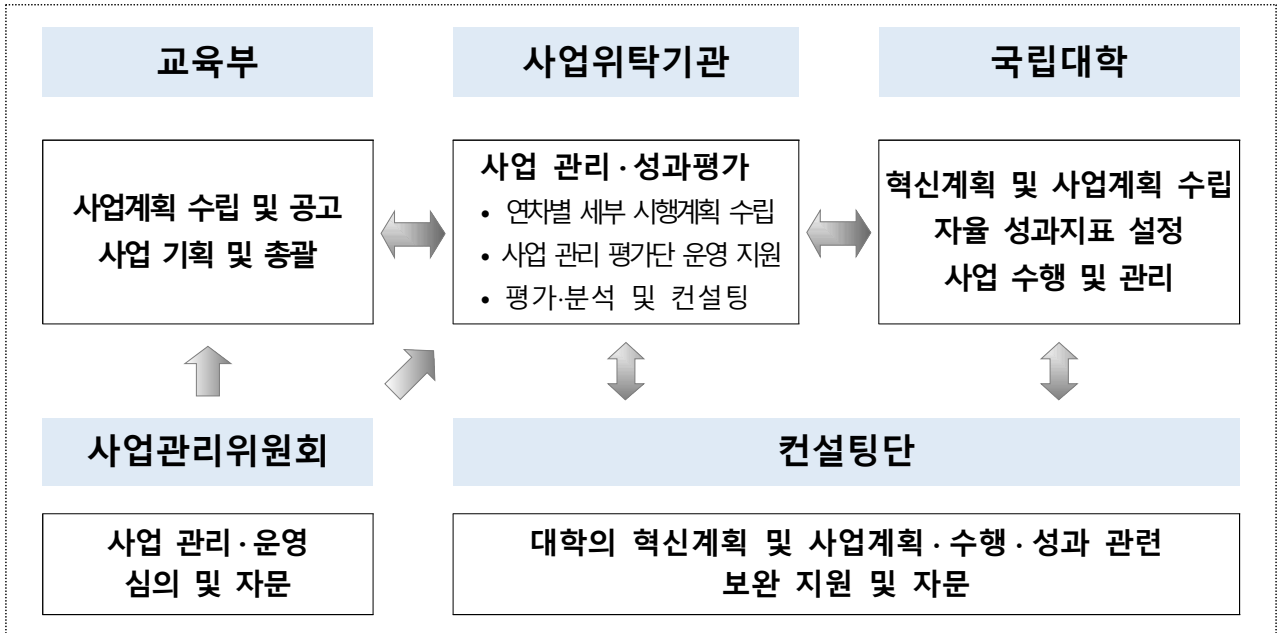
- 대학의 학생 정보(수업 이수, 학점 등), 학과정보, 교육성과 및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는 체제
 - ※ 미국의 경우, 4,700여 개 대학에서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전공 및 진로 추천, 강의 추천 시스템 등으로 연계를 지원하는 실천적 데이터 구축 및 분석체제로 기능
- 대학 전체의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대학의 의사결정 및 재정운용 효율화 도모

□ IR(Institutional Research) 시스템 구축

- 대학의 자율적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대학경영 성과분석을 가능토록 우선 **개별대학별로** 그 특성에 맞게 도입
 - IR을 활용하여 개별 국립대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구체화** 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관리**

V. 추진체계 및 관리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관리·운영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평가 시행, 성과평가 분석
 -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대학별 성과평가 및 지원금 확정*, 사업 관리 점검 등 주요 사항 심의·자문
 - *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대학별 지원액 조정 심의 가능
- **(컨설팅단)** 대학의 혁신계획 및 성과지표, 사업계획 등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애로사항 자문 등 수행
 - 우수한 사업 성과를 대학이 공유·확산하고, 대학별 사업 추진 및 환류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의 지원 활성화
- **(대학)** 혁신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비) 집행 및 성과관리, 자율협의회 참여 및 성과 공유·확산 등 수행

□ 협약 체결

-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 총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책무성 확보

□ 대학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등 구성·운영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 성과 창출·공유 등 총괄
 - ※ 국립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 (추진단) 사업 및 집행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한 관리·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 등 수행(상시 평가, 환류 체계 구축)
 - ※ 교무위원급을 사업추진단장으로 위촉,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지원예산은 기관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대학회계 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
 - 사업비 조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총액의 60%(포플러 지원금)를 1차 교부('23.4월), 글로컬 대학 선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교부 예정
 - ※ 사업비 교부 일정 및 규모 등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목적과 대학별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 투자·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 사업목적 및 중점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개선(코러스* 등 정보화 부문 포함), 학술자원 공유(전자저널* 등) 등에 예산 투자 가능

* 코러스 분담금은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과제’로, 전자저널 구입은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과제’ (해당 과제가 없는 경우 ‘특화전략 기반 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편성 가능

- **대학별 사업비 확정 전에도** 대학의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립·의결한 '23년도 사업계획(안)에 근거한 사업 추진 가능
- 사업개시일('23.3.1.) 이후부터 **'23년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先)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이월 예산(10%)은 '23년 사업계획 내 편성·집행

□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 ①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 사업비 집행 점검 및 사업 기간 종료 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실시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① 법령 위반 ② 입사·학사·회계비리 등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사업비 관리·조정
- ※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일정 수준 제재
-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발생 시 수혜 제한 조치

□ **컨설팅 강화**

- 대학별 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대학별 전문가 컨설팅 확대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지원금은 '24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
- 대학은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유지충원을 등 점검 안내

- '22~'24년 기본계획('22.2.)을 통해 안내한 유지충원을 점검(컨설팅,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은 '23년 인센티브 평가로 대체 적용
- 대학이 기 수립한 '23~'25년 적정규모화 계획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 적용

□ 우수성과 공유·확산 및 홍보

- (성과 공유·확산) 대학별 사업계획, 우수 성과사례 등을 각 대학, 사업위탁기관,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홍보 강화) 사업 성과와 국립대학의 역량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 성과 및 국립대학에 대한 인지도 동시 제고
 -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 성과 확산 추진, 국립대학 간 협력 등을 위해 지역·유형·네트워크별 대학 협의체 운영 지원
- ※ 국립대학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대학 간 교류, 사업홍보, 성과 확산,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시 별도 예산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등 대학 협력 과제의 경우, 대학 간 역할과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회성 행사는 지양
- 통합 대학의 경우, 캠퍼스 간 균형 발전, 지역 캠퍼스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및 재원 투입을 지속 추진
- 자율 통합 준비 대학의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의견수렴, 캠퍼스 특화 및 경쟁력 강화 계획, 통합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

VII. 향후일정

- 사업 협약체결(한국연구재단-국립대학) 및 사업비 교부 : '23.3~4월
- '23년 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1차) 제출 : '23.5월 말~6월
- 혁신계획서 평가 실시 : '23.6월 말~7월 초
-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 '23.7~8월
- 전문가 컨설팅(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3.8월
- 대학별 수정 혁신계획서 및 사업계획서(2차) 제출 : '23.9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대학명
거점 국립대 9교	① 강원대, ② 경북대, ③ 경상국립대, ④ 부산대, ⑤ 전남대, ⑥ 전북대, ⑦ 제주대, ⑧ 충남대, ⑨ 충북대
국가중심대 특수목적대 17교	① 강릉원주대, ② 공주대, ③ 군산대, ④ 금오공과대, ⑤ 목포대, ⑥ 목포해양대, ⑦ 부경대, ⑧ 서울과학기술대, ⑨ 순천대, ⑩ 안동대, ⑪ 창원대, ⑫ 환경국립대 ⑬ 한밭대, ⑭ 한국교통대, ⑮ 한국방송통신대, ⑯ 한국체육대, ⑰ 한국해양대
교원양성대 11교	① 경인교대, ② 공주교대, ③ 광주교대, ④ 대구교대, ⑤ 부산교대, ⑥ 서울교대, ⑦ 전주교대, ⑧ 진주교대, ⑨ 청주교대, ⑩ 춘천교대, ⑪ 한국교원대
총 계	37개교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PoINT) (2013 ~ 2017)

-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등 체질 개선 및 경영 혁신을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선정평가를 통해 일부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
- 정책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 한 바,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액 등이 매년 변경

□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 (2018 ~ 2022)

- 모든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국립대학('22, 38개교) 대상으로 5개년간 연간 1,500억원 지원('18년 ~ '22년)
※ 800억 원('18) → 1,504억 원('19) → 1,425억 원('20) → 1,500억 원('21~'22)
-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18년 800억 원 → '19년 1,504억 원, '20년 1,425억 원) 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 ①고등교육 기회 확대, ②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③특화 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④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⑤지역사회 기여
- 국립대학이 중점 추진과제별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도록 지원 강화

구분	POINT('13 ~ '17)	국립대학육성사업('18 ~ '22)
목적	대학 발전모델 구축 및 인사·조직·회계제도 개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210억 원	('18) 800억 → ('19) 1,504억 → ('20) 1,425억 → ('21) 1,500억 → ('22) 1,500억
지원대상	일부 국립대(18개교)	전체 국립대(38개교)
지원방식	경쟁방식 선정평가형	정부-대학 간 상호협약형
성과관리	사업계획 심사 및 중간평가	대학별 협약 체결 매년 운영성과 점검
성과지표	개별 대학이 선정·관리	38개 대학 공통 성과지표 관리 개별 대학 특성에 적합한 자율지표 선정·관리
사업기간	1 ~ 2년	5년 ('18 ~ '22년)

①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계획을 기반으로 혁신 전략 보완·발전
 ※ 교육 혁신 및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 간 공유 협력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질과 학생 역량 제고 지원
- 적정규모화 계획('23~'25), 학사구조 개편 등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계획 반영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적정규모화 계획, 재정 투자계획 및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②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융·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 (예시) 전공-취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입학 후 전공 선택 기회 확대(기초교양 학부·전공탐색기간 등), 신기술 분야 기초교양교육, 복수전공·부전공 확대 등

③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국립대학교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국립대학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재정지원 등 연계하여 추진
- 지역사회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대학-지자체-교육청 등 협력 모델을 다양화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
 - 지역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초·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 대학의 교육 자산(도서관, 도서, 교육시설, 연구실, 실험실), 부속 자산(박물관, 기숙사, 식당), 기술 자산(특허, IT) 등에 대한 개방과 공유 확대
- 지역 내 다양한 평생교육 자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4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센터 운영 및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특성화와 학문의 융합·연계 활성화
- (권역 간) 거점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원격수업 교육 콘텐츠 공유 및 학점교류로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을 확대
 - ※ 온오프라인 학점교류 확대 →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 전체 국립대로 확대
- (연합·통합) 자율적인 대학 간 연합, 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5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 '기초·보호학문', '특화학문' 분야는 대학별 특성 및 강점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 학부생 및 학석사과정 장학금 지원을 통해 기초·보호학문 분야 및 특화학문 분야로의 우수 인재 유입 유도
 - 대학의 기초·보호학문 관련 개별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 지역사회가 원하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 대학별 연구경쟁력을 갖춘 학과(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에 장학금, 연구비 등 지원 및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5년) 등 추진
 - ※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한 학부생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부생 연구 참여활동 지원 강화
-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분야 육성 및 지역·국가 수준의 전문 연구 기관과의 합동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6 융·복합 및 전문 인재 양성

-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교육과정 개발·적용
 - 미래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융복합 학과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국립대학별 강점 학문영역, 설립목적(교원양성 등), 특화 교육 방법 등을 고려한 특정 분야 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AI, Io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7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 해외 대학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공동학위제 운영과 교수 및 연구자 교류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지역 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교육-지역기업 취업-지역 정주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①인력 수요가 있으면서 ②내국인은 비선호하나 ③외국인 선호 가능성이 큰 분야 등 고려